



시내산 암각화에 새겨진 3500년 전의 고대 문자를 해독하다(8면 참조)

암각화에 출애굽 당시 흥해기적을 기록



▲ 누웨이바가 흥해를 가른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곳임이 밝혀졌다(8면 암각화 특집 참조) ▲ 3,500년 전 출애굽 당시 바닷길의 폭은 오늘날 6km보다 좁은 2km로 추정

본지 758호(2018. 5. 1) 8면 와당 특집-「한민족 뿌리찾기」에서 3천 2백년 전에 이스라엘의 올드네게브 문자(사사士師 시대의 원시 히브리어)를 새긴 고조선 수막새(와당) 3점을 소개하는 동시에 고대 문자를 해독한 바 있다.

와당①(독수리 같은 단군의 저 백성들이 여기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와당②(오염화(무공화)를 많이 생성시키자 & 추위로부터 어린 가지를 보호하자), 와당③(무장한 6백 명이 신당의 우상을 조롱하자 아뢰게서 '아멘' 하고 응답하셨다 & 제사장 요나단이 그들(단지파 백성)을 보자 함께했다)

그런데 약 3천 5백년 전에 사용된 고대문자가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 주변의 암각화(위의 사진을 실제 배경으로 한 8면 특집 참조)에 새겨져 있는데, 그 고대문자가 고조선 수막새의 올드네게브 문자의 문양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올드네게브 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후 미디안에서 40년 광야생활할 때 사용한 모세 시대의 원시 히브리어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고조선 백성의 후예인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승리제단의 주장을 더욱 확고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면서 출애굽기 2장 23절을 읽어보면, '에굽 왕'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미디안 땅에서 모세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왔다고 전하는데, 이때 모세의 나이는 팔십(BC 1447)이요 또한 십 여 년 전에 죽은 '에굽의 왕'은 모세의 어머니 하트셉수트(Hatshepsut, 생몰연대 BC 1508~1458년) 여왕(女王)일 수밖에 없다. 물론 모세의 생모(生母)는 이스라엘의 핏줄을 이어받은 요게벳이며, 요게벳은 모세의 유모(乳母) 자격으로 궁전에 들어갈 수 있었다.

암각화에 투트모세3세의 이름을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로 새겨

[암각화②]에서 유일하게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로 바로왕 투트모세3세의 이름을 새겨놓고 있다. 그리고 [암각화⑥]에 투트모세3세(재위 기간 BC 1504~1450?: 토폰성경, 이집트박물관)가 타고 있던 전차(戰車)와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아 익사(溺死)하는 장면은, BC1450~1446년이 곧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기(時期)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암각화②]는 투트모세3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집트인의 입장에 서서 익사한 바로왕이 태양신 라(Ra)로 부활한다는 추모(追慕) 형식으로 새겨져 있는데, 이는 한때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가 암각화 조각을 통해 자신과 바로왕의 투트모세3세 사이의 각별한 우정(友情)을 표출하고 있는 듯하다.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면서 출애굽기 2장 23절을 읽어보면, '에굽 왕'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미디안 땅에서 모세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왔다고 전하는데, 이때 모세의 나이는 팔십(BC 1447)이요 또한 십 여 년 전에 죽은 '에굽의 왕'은 모세의 어머니 하트셉수트(Hatshepsut, 생몰연대 BC 1508~1458년) 여왕(女王)일 수밖에 없다. 물론 모세의 생모(生母)는 이스라엘의 핏줄을 이어받은 요게벳이며, 요게벳은 모세의 유모(乳母) 자격으로 궁전에 들어갈 수 있었다.

암각화에 흥해기적을 올드네게브 문자로 표현하고 있어

[암각화③]과 [암각화⑤]는 물이 멈추고 그 자리에서 빙빙 도는 가운데 육지 같이 난 바닷길을 걸을 것이라고 올드네게브 문자로 새겨져 있는데, 그것을 현대히브리어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הָיָה לְהוֹדֵר : 땀뿜다, 머물다)와 (לָלֶכֶת Will walk ; 걸을 것이다)

올드네게브 문자로 모세의 이름 (מֹשֶׁה Moshe)이 새겨진 [암각화④]에 단봉낙타와 나귀가 다른 짐승보다 앞장서서 미디안 땅에 도착하고 있다.

그리고 [암각화④]과 [암각화⑥]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 길을 통

과하여 미디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높은 언덕으로 피신하였다고 한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 모세가 좌우로 벽을 이루고 있는 바닷물이 미디안 쪽에서 시작하여 누웨이바 쪽으로 서서히 합쳐져 가면서 마지막에는 쓰나미처럼 양쪽 해변을 덮칠 것을 내다보고 있었다가 된다.

17? To Dan: 단(단지파)을 위하여

출애굽의 목적을 새긴 [암각화④]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를 구원하는 데 있었으며, 궁극적인 목적이 단 자손 가운데 심판자(士) 구세주 출현을 예언한 아람 하나님의 말씀(창 49:16)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고 시내산 암각화에 새겨 놓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나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예언대로 20세기 후반에 와서 단지파에서 메시아가 출현한 것이다.* 백태선 기자

†참고문헌: 고고학자 제임스 해리스(James Harris) 박사의 저서 『The Name of God: from Sinai to the American Southwest』 p23, 24

한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의 원족(原族)인 증거

『박정규 박사의 한국고대기독교 뿌리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교회연합신문(2011-04-28)에 실린 내용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역사학자들이 우리 민족을 알타이족 몽고족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위의 지방을 거쳐 들어왔음으로 우리말(한글)의 어원이 알타이어와 맥(脈)을 같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조상은 단(檀) 민족이 몽고지역을 거치면서 언어의 변천을 가져왔으나

히브리인의 풍속은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풍습과 전통속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 (중략) 전술한 바 평양 대동강 유역에서 발굴된 기와(瓦當)에 새겨진 히브리 문자와 조각은 우리 민족이 히브리 민족의 단지파 후손임을 입증해 주는 고고학적(考古學的)인 근거가 된다. 이로써 단(檀)자손은 선민 히브리 민족의 한 분파로 중동에서 한반도로 이동하여 정착하였다고 보는 것은 성경의 기록(창 9:26-27, 49:16-18, 이사야

41, 사 18 참고)이나 물증(物證)·평양 대동강유역 기와)으로도 충분히 확인된다고 하겠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 배달민족의 뿌리를 바르게 알 수가 없고 파악할 수 없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승리제단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아람)의 열두 아들 가운데 다섯 번째 아들 '단'이 한 민족의 시조 '단군(檀君)'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의 원족(原族)이라는 여러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한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당시 양(羊)

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액(厄)을 면했다고 해서 유월절 풍습으로 대대로 지켜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천 2백년 전에 이스라엘의 12민족 가운데 단 민족이 이스라엘 소라 섬에서 동쪽으로 이주하여 한반도에 와보니 양이 없으므로 양의 피 색깔과 비슷한 팔죽을 써서 동짓날에 문설주에 바르는 것으로 유월절 풍습이 변모된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제사 지낼 때 향을 피우고 사람이 죽으면 붉은 벼락을 입고 “아이고 아이고” 곡(哭)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똑같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57)
“신앙의 씨앗은 양심”

눈 감고 하나님에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인줄 아는데 그건 예수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된 것이다. 신앙의 씨앗은 양심이다. 양심은 언제든지 양보하고 남에게 무엇이라도 주면서 사는 것이다.

양심을 따라 살게 되면 봉사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상대방의 사정을 내 사정처럼 여기게 된다. 양심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 속에 극락이 있고, 천당이 있고, 양심 속에 행복 있는 것이다.

사람마다 행복을 추구하고 동경하고 희원(希願)하고 있지만 그 행복을 쟁취해보지 못하고 다 땅에 묻히고 마는 것이다. 그것은 나라의 주체의 식에서 나오는 악령이 되는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되는 것이다.*

새 연재 코너 소개 노년의 행복 설계하기



글을 열면서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어간다고 해서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자칫 준비없이 살다가 쓸쓸한 노년의 종말을 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세기 말엽부터 급속하게 제기된 노인문제의 배경으로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가족의 붕괴와 핵가족화, 전통적인 노부모부양체계의 붕괴와 새로운 체계의 미정립, 노인의 탈가족화(脫家族化)와 이로 인한 노후생활의 여러 어려움의 증대, 노인문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부의 노년복지대책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진입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그 속도가 엄청 빠르다.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현재 정부가 미처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책을 충분히 마련할 틈도 없이 닥쳤다. 또 부모봉양을 당연시하던 사회 분위기가 변하면서 자녀와의 갈등도 심화되어 우울과 빈곤을 경험하고 자살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특히, 인구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사회적 국가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이며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아무리 국가가 건강보장 일자리 보장 주거보장 문화생활보장을 해도 복지정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오늘날의 한국이 있게 한 자본인이 노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노인공경과 예우, 수발을 잘해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노인 존중의 전통은 유교의 영향뿐만 아니라 훨씬 그 이전 요순시대부터의 일이다. 고대 통치자들이 양로예절을 철저히 시행했기 때문에 법도와 질서 기강이 바로 설 수 있었으므로 민간에서도 활발하게 시행되었던 것이다. 현재 정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은 단순하게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을 넘어 인간다운 삶, 정서적으로 행복한 삶을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한 근본 해결책으로는 노인이 되어도 건강하게 사회 참여활동을 하며,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오래도록 인간적 경제적 정신적 자립하며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바로, 그러한 의지를 담아 '노년의 행복 설계하기' 라는 기획코너로서 노년의 고민 해결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였다. 새롭게 마련된 지면(紙面)을 통해 사회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어르신'으로 확실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안내할 것이다.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기대하는 바이다. 다음호를 기대해 주세요!*

김주호 기자

2지역 3개월 만에 1등

개인 1등 박태선 승사



2지역 김혜선 권사가 상을 받고 있다

본부제단은 4월 9일 화요일 구역장 회의에서 3월 성적 우수자에게 상금을 주는 시상식이 있었다.

*지역 1등: 2지역(지역장: 서보복,

지회장: 김혜선)
2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3등: 3지역(지역장: 김갑용, 지회장: 정은경)

*구역 1등: 28구역(구역장: 박태선) 2등: 50구역(구역장: 김두식) 3등: 53구역(구역장: 석선자)

개인 1등: 박태선 승사 2등: 김두식 승사 3등: 신불선 장로